

백원국 2차관, 한-네덜란드 모빌리티 협력강화

- 25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차관 만나 미래 모빌리티 향한 협력 논의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월 25일(목)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케이스 반 더 부르흐(Kees van der Burg) 네덜란드 ‘인프라·수자원 관리부’의 모빌리티 담당 차관을 만나, 한-네덜란드 간 모빌리티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 - 이날 면담은 제37회 전기차 심포지엄(4.24~26)을 참석을 위해 방한한 네덜란드 차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, 페이터 반 더 플리트(Peter van der Vleit) 주한 네덜란드 대사도 동석하였다.

- 백 차관은 “한-네덜란드는 1961년 수교 후 교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며,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이어 나가자”면서,

 - “네덜란드 전기차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, 국내 기업 진출도 활발함에 따라, 향후 전기차 보급과 안전성 확보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혔다
 - 또한, “우리는 KTX-청룡 도입, GTX-A 개통 등 철도 고속화를 추진 중이며, 최근 네덜란드에서 양국 기업이 협력하여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시험선을 완공하였다고 들어, 앞으로도 철도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덧붙였다.

- 이에, 케이스 반 데르 부르흐 차관은 그간 이어온 60년간의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전기차, 철도 등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(R&D)에 있어 한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.

 - 백 차관은 “양국은 앞으로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·강화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2024. 4. 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